東亞日報

今日四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金鐵中
印刷人 趙宜淳

普通學校敎育의 危機 (上)

失政의 一例

一

前日本紙에 報道한바와 如히 京城府에서는 「朝鮮人初等敎育普及委員會」를 設하고 五個年間 京城府內에서 必要한 普通學校增設의 財源에 關하야 提案한바 잇섯고 그委員會의 意見을 드르면 그 計劃의 內容으로 말하면 京城府의 朝鮮人口에 比하야 學齡兒童數가 全人口의 一割五分에 該當하며 人口增加率이 日本人에 比하야 別로 差異가 업는 朝鮮人의 學齡兒童數의 比例를 日本의 就學兒童數의 比例에 對照하야 그 三分의 一餘에 不過하며 四分八厘乃至五分八厘餘에 不過하니 朝鮮人의 學齡兒童數의 四分八厘나 五分八厘를 收容할 計劃으로는 京城府의 朝鮮人敎育에 對하야 誠意가 업는것으로 斷言할수밧게 업는것이다

二

그計劃下에 要求되는 財源은 그에 比하야 論評할바도 되지아니하야 寄附로 大概한 意見을 表示하엿다고한다 即 그計劃을 遂行함에 約百萬圓이 必要하다는바 이것을 全部民間의 稅金에서 絕出하자는것이다 朝鮮人이 京城府의 이번 意見에 對하야 不滿足하다는것은 그 理由가 다름 곳에 잇지 아니하니 數字上으로 나타난바에 依하야 判斷하면 그것을 國庫補助에서 求하지 아니하고 純然히 直接民間의 負擔에서 取하라고 하는것은 되지아니할것을 일면서도 하는것이 아닌가하야 疑心하는바요 뜻재로는 그와갓흔 賦課方法은 現代人의 常識으로는 絕對로 許諾하지아니하는 苛求之策인까닭이다

三

다시말하면 그敎育費의 賦課가 아모리 朝鮮人의 貧弱한 財力에서라도 그 賦課率이 現代的이어야하며 그 賦課方法도 顧慮는 말도말고 英米나 日本과 比하야 日本人이 今日 負擔하는 稅金을 바다서 敎育에 對하는지도 알수가 업다 國家가 人民에게서 稅金을 바다서 敎育에 對하야 엇던 方法으로 하던지 오히려 肯定할 理由가 잇슬 것이나 그만두고라도 그人民에게 代所謂國家라는것이 그人民에게 課稅하는 程度로만 보더라도 이 案을 京城府에서 提出한것은 그 無理를 說破하야 結局 朝鮮人의 敎育은 이 程度即 日本人의 三分之一에 지나지 못하는 程度와 敎育普及도 朝鮮人의 經濟力의 不足으로 不可能이라는 結論으로 歸하려는것이 아닌가한다

四

그러한 苛酷한 程度의 賦課方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處地와 能力을 도라보고 다시 敎育의 必要를 切感하는點으로 보면 아모리 逆理요 苛酷이 限업는 하엿슬지라도 그대로 甘受하는것이 可할는지는 알수가 업스나 그러나 이러한 苛酷에는 反對를 아니할수가 업다 더욱이 우리의 私評으로는 이 苛酷을 그대로 甘受할수 업는 너무나 無理한 만큼에야 엇지 그대로 隱忍하기를 바랄수가잇스랴 吾人은 그 苛酷하는 것을 後段에서 말하

奉軍再次 總攻擊開始

南口運命七日中決定?

더니와 이로써 有爲者의 稅金負擔에 理由바와 不當한 方法임을 말하는 것이고 無理라 하는 것이아니오 그結果로 敎育의 危機를 今日의 이 制度에서 그無하는 行政에 悟慨함이다

奉軍은 七日拂曉부터 第二回의 南口總攻擊을 開始하고 第一回總攻擊後 南口는 거의 包圍되엿슴으로 七日夕까지에 運命을 決하리라더라(奉天七日發)

山東兵變鎭定

叛兵이 第八軍長 許琨의 討伐을 當하야 北方에 逃走하엿슴으로 許氏는 處理를 高密駐屯軍에 命하고 昨夜歸還하엿더라(靑島六日發)

聯合軍一部 果然國軍과 策應

田氏對吳報告가 實證

聯軍內部에 國民軍에 內應한 者가 또 잇다함은 旣報한바 어니와 石田軍 作後淸水尖, 孤雛山方面에 敵實한 事實이 兵하다 即 奉天에 在한 情報에 依하면 田維勤氏 부하 田軍의 王團長以下 一部가 이에 策應하야 國民軍에 投降한 것을 自身이 吳佩孚氏에게 對하야 報告하엿더라(奉天六日發)

國軍十六萬에

聯軍不過十四萬五千

中華民國의 興亡 戰爭이라는 南口附近에 國民軍의 勝敗는 奉直兩軍의 作戰에 關하야 아즉 國民軍의 兵數는 近의 戰勢漸次進展하야 吳張聯合軍은 張學良氏總指揮로 奉軍과 直軍約十四萬五千人 國民軍十六萬人 山西軍約七萬人으로 參加兵數에 到達에 漸擊하고 一方國民軍 數는 四十萬人에 達하는 戰況如何는 大同口方面에 占有함을 取하고 北京進出을 目標로 하야 戰略에 不利함을 어 … 頗히 注目에 値하더라(北京電)

軍閥의 暴壓으로 北京言論界恐慌

民立晩報에도 發行停止處分

政府의 抑壓은 連續하는 新聞에 對하야 日中國新聞은 事實을 報道함에 各大舘 一靑의 評論을 加치 못하는 形便인데 軍警當局의 態度는 天氣豪亂을 하야 比較的 言論公平한 民立晩報는 發行停止를 命하엿다(北京七日發)

鹽稅逆附督促에

福建江西는 拒絕

政府의 鹽稅逆附促에 對하야 浙江 福建省은 拒絕의 返電을 發하엿는바 江西省當局도 三日附로 兩省의 代所問題가 解決後가아니면 不能하다고 返電하엿더라

國民軍이 無電設置

北京과 天津에

國民軍은 目下秘密裡에 北京의 公使館區域인 交民巷과 天津의 適當한 場所에 無線電信을 設置하고 國民軍의 根據地 張家口와의 聯絡을 取하기로 準備中이더라(天津電)

馮玉祥氏

高加索에 避暑?

馮玉祥氏의 所在에 對하야는 種種의 風說이 잇는바 目下 高加索地方에 避暑中인것이 判明되엿는데 不遠間 張家口에 歸하리라더라(東方通信)

南口戰線에

日本人 救護班

南口攻擊以來同地附近數千의 避難民, 傷病兵 救護의 目的으로 日本人有志者田, 阪田外十數名은 看護婦와 同伴하야 戰線으로 向하엿다더라(北京七日發)

露中兩國間

利權問題惹起

露西亞의 黑海艦隊가 示威하야 軍隊를 北滿에 派遣하야 軍隊를 ... 最近에 中國鐵道에 ... 兵營을 ... 中國側은 國境에 ...

無限히 增加하는 世界의 人口

人口問題로 본 各國現狀 【三】

爲先 匈牙利부터 말하면 同國은 中歐洲中第一文化의 程度가 나즌國이나 人口의 增加率은 그와 反對로 되엿다 匈牙利는 一九二一年 一九二二年及 一九二三年의 三個年間에 各二七、九、二九、四、及二八、八、二로 英國이나 佛國의 二倍以上 되는 戰前에는 中部歐洲中第一 이엿다 其次에 보헤미아 殖民地利가 其次이고 獨逸이 最低率이엿다 戰爭始初時期의 出産率은 大槪各三一、三五及二八、八、二이엿다 그러나 戰爭의 影響은 莫大하엿다 一九一三年 獨逸의 出産率은 二七、六으로 一二、六의 自然增加率을 示하든것이 一九二一年부터 出産率은 二五、二、二二、八、二〇、九、二〇、四順으로 每年 減下되엿고 同時期의 自然增加率도 一一、三、想나다름업슴을 알수이다

英國과 佛國은 勿論增加하기는 하나 其率은 漸減하는 狀態이다 即 二一로 增進하엿슴에 不過하고 一、九와 九、〇이엿고 左表에 依하면 最近英國은 停電狀態이다

	一九一三年	一九二三年	一九二四年
英國과 웰스 出産率	二四、一	二〇、六	一八、八
同 自然增加率	一〇、三	八、五	六、六
蘇格蘭 出産率	二五、五	二二、八	二一、〇
同 自然增加率	一〇、〇	九、〇	七、九
愛蘭 出産率	二二、八	二〇、六	一九、九
同 自然增加率	五、三	八、〇	六、九

又最近情報에 依하면 英國 今年 一月부터 三月까지의 出産率은 年一千人에 對하야 一八、二로 英國人은 現在世界中 第一의 減産國이라고 떠든다 「쎄스、마잔드」雜誌는 「此傾向은 現下國內 一般에 警戒할 調査하면 如左

	出産率	死亡率
一九一三年	五八、九一	
一九二〇年	一五、九、七九〇	
一九二一年	一一七、〇二三	
一九二二年	七〇、五七九	
一九二三年	九四、八七一	

佛國의 出産率은 減少하야 一世紀前의 合衆國民과 好對照가 된다 佛國의 出産率은 過한 數에 對하야 調査하면 이러한 非常한 低率이엿든것이다

佛國은 戰前의 二〇에 比하야 現在 一八임으로 非常히 高率 이 即 出産率은 戰後 非常한 努力의 結果로 破하엿다 佛國은 産兒制限을 하는것이라고 한다 漸次 오르는 方死亡率은 一八임으로 非常한 高率이나 其實 佛國은 老人國임에 對하야 二〇、二를 保持하는 西班牙의 出産率은 恒常千人에

時自然增加도 大槪九、五로 安定되여잇고 伊太利는 每年約 四十萬의 出産率은 每年各三〇、四、三〇、〇、二九、三으로 漸次多少減少하는 傾向이 잇스나 가이와가치 激增하는 事實은 「뭇소리니」首相으로 하여금 列國에 對하야 自國의 移民을 獎勵케 하는 또 地中海의 覇權을 絕叫케 하엿다 다음 濠洲新西蘭에 對하야 말하면 濠洲는 一九一三年의 出産率이 二八、二로 死亡率이 九、五이엿고 新西蘭은 一九一三年의 出産率이 二六、一로 死亡率은 九、五이엿스나 十年後에는 二一、九와 九、〇이엿다 그리하야 一九二四年의 新西蘭의 死亡率은 八、三으로 減下되야 世界中最低의 死亡率이 되는바 此는 住民多數가 壯年이엿든 것이다

赤露總動員

南露內亂鎭壓코저

露都來電에 依하면 「소비에트」政府는 南部露西亞內亂을 鎭壓키爲하야 軍隊에 對하야 總動員을 命하엿더라(부가레스트七日發)

「지」氏擁護로 黑海艦隊反亂

켈츄、켈손을 이미 占領

露西亞의 黑海艦隊가 叛亂하야 過激派失脚한 「지노비에프」氏에 加擔하야 黑海沿岸을 砲擊하고 「켈추」와 「켈손」兩市를 占領하엿는데 「켈추」는 「크리미야」半島의 要港으로 「아숍」海의 咽喉를 扼하고 「켈손」도 沿岸의 港口이더라(부가레스트七日發)

匪賊橫行에

嚴重抗議

日本이 對中國

關東廳에서는 最近州外各地에 匪賊橫行함에 鑑하야 그 때맛나 中國側에 抗議하엿스나 何等効果가 업고 日本官憲은 모다 中國官憲의 橫行이 一層甚함으로 關東廳長官은 吉田奉天總領事에게 嚴重抗議하도록 依賴하엿더라(奉天電)

에 잇다는 理由로 蒙道를 中止식힘과 共히 六月二日 「코론바일」의 中國交涉員 將仲仁으로 滿洲里 領事에 抗議하엿는데 領土權問題로 暴竟露中間의 係爭事件이 되기에 至하엿다 露西亞領事는 「따우리」聯隊長에게 交涉하라고 同避하고 七月十一日 聯隊長은 中國領土인 事가 明白하면 兵營을 渡하리라 하야 曖昧히 回答하엿슴으로 將來幾多波亂을 豫想하더라 (滿洲里六日發)

京師警衛總司令

王懷慶氏辭職

軍警維持費窮乏으로

最近 國民系各大學生에게 對하야 昌秀軍으로 因하야 破壞되엿슴으로 本日부터 不通한다더라 ... 王懷慶氏는 軍警維持費에 窮하야 七日辭職하엿더라

京漢線不通

河南省 京漢線 郾城、許昌間은 ...

日中通商滿期

改訂交涉開始

日中通商條約은 十月 一日滿期에 就하야 日本政府에 改訂의 交涉이 開始되야 目下 그 準備中이더라

中兵哈爾賓 英國領事에 暴行

哈爾賓駐在英國領事 「한손」氏는 六日午後五時頃外出하기爲하야 領事舘門前에 出한바 同舘前을 通行하든 一隊의 中國兵은 門內에 突返하야 暴行하엿슴으로 該領事는 兵士의 隊長과 指揮官의 陳謝를 要求하엿더라(哈爾賓七日發)

勞農外交部가 佛獨外交部에 言明

東歐現狀不可侵害

確報에 依하면 勞農露西亞外交部 議會副議長 「리도비노프」氏는 佛蘭西外務長官 「부리앙」氏及獨逸外務長官 「폰·슈벨」氏에 對하야 「아니아」侵略計劃에 就하야 協議 勞農政府는 東部歐羅巴 現狀이 侵害되는 境遇에는 如何한 事情이 잇드래도 消極的 態度는 取할수업다고 言明하엿다 「리도비노프」氏는 最近巴里를 訪問하고 莫斯科에 歸하는 途中 伯林에서 「폰·슈벨」氏와 長時間會見하고 波蘭의 「리스」한바 右會見은 露西亞의 武力干涉을 意味하는것이라고 觀測되더라 (伯林六日發)

國際新聞通信會議

勞農 「랏스」通信社는 出席을 拒絕

勞農政府 御用 「랏스」通信社는 八月十九日 「제네바」에 開會의 國際新聞通信會議에 參加를 拒絕하엿다는데 右理由는 勞農露西亞가 瑞西에서 開會되는 모든 會議에 「보잇코트」를 實行中인 外닭이더라 (제네바七日發)

米佛戰時債務

佛議會批准?

佛蘭西首相兼藏相 「포앙카레」氏는 法貨安定을 爲하야는 적어도 亞米利加財界의 好意를 得하야 그 援助를 必要로 함으로 對米戰時債務

日獨染料交涉

正式交涉開始

日獨染料交涉은 正式交涉에 入하야 外務省聲明과 갓고 問題인 染料紳士協約은 委員會에 依하야 實施하게되고 該委員會는 日獨兩國政府의 官吏 獨逸染料省代表 日本商務省代表四氏의 合同下에 組織되는바 染料省民表는 새로 獨逸서 東京에 派遣하게 되엿더라(東京電)

勞働組合運動에 官吏關係를 禁止

英藏相下院에서 發表

英國藏相 「칠드」氏는 本日下院에서 政府官吏가 勞働組合에 關係하기를 禁止한다고 發表하엿더라(론돈電)

牧野內府辭任?

去三日牧野內府와 山本權兵衛伯 이 三時間에 亘하야 會談한 結果 山本伯은 直時 興津에 西園寺公을 訪問한바 그 內容은 아마 牧野內府의 辭任으로 現出하리라더라

毒瓦斯試驗

空前의 大規模로

陸軍에서는 三十日부터 四日間 旭川七師團의 御影砲兵射擊場에서 日本最初의 大規模毒瓦斯試射 演習을 實施하고 宇垣陸相以下 陸軍最高幹部多數가 臨場하야 國際條約上의 立場으로 今回의 演習도 絕對로 防禦的立場에서 演習만은 實施할 豫定으로 參加部隊는 陸軍化學硏究所 旭川砲兵第七聯隊로 部에서 動物化學兩試驗을 하리라 더라 (東京電)

墨西哥宗敎戰에 死者數百餘名

收監된者는千四百餘

「하리스코」州 「가다라야」市에 宗敎暴動이 起하야 加特力敎徒五名 兵士數百名이 殺害되고 一千四百十六名은 收監되엿더라 (墨西哥시치七日發)

機密費問題와 政友會의 對策

憲政會가 政友會에 對한 機密費問題其他를 指摘하고 政友會에 自決을 强要함에 對하야 政友會는 自黨의 公明을 立키爲하야 頻頻히 協議會를 開하고 所謂 機密費問題 總裁更迭의 事情, 政革合同 同交會復歸 本黨의 潰裂은 瀆職等이라는 辯明原案을 作成하야 이를 公表하고 憲政會에 對應하기로 努力하더라

內閣總辭職說

憲政은 一笑에 附

最近政界의 一部에서는 現內閣이 近近 總辭職을 決行하리라는 說이 잇슴에 對하야 憲政會는 이를 一笑에 附함과 共히 黨員을 擧하야 我黨의 主張을 貫徹하기로 來議會를 解散하고 信을 國民에 向하야 外政策 遂行에 努力할 意見이 一致되엿더라(東京電)

松島事件으로 各黨總務 及會計取調?

松島事件은 其後角南豫審判事는 調書整理에 沒頭하는바 七日은 田中地方裁判所長 西山、安井兩檢事가 何事인지 密議한 後 政黨에 橋渡한 運動費의 複雜한 間題에 對하야 各政黨의 總務會計等의 參考로 取調하는것으로 觀測되더라(大阪電)

綱紀肅正問題

政友委員會

政友會의 綱紀肅正問題委員會는 五日午前十一時 本部에 開會調査項目 七件의 主査로 七名의 委員을 指命하엿다

第一調査項目 綱紀紊亂事件中 松島, 鐵道省, 復興局事件

一、地方競馬의 認可不正事件
一、各地信託會社認可不正事件
一、御料林拂下에 關한 不正事件
一、朴烈事件
一、田中前代議士復權認可에 關한 件

等에 就하야는 크게 調査를 進하기로 하고 다음 憲政會綱紀肅正委員會에서 發表한 事項에 就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더라(東京電)

仁取移轉防止策

運動組合

◇仁取株買入

仁川運送業組合은 組合基金中 四千圓의 預金이 잇슴으로 仁川의 繁榮策으로는 築港의 問題와 共히 仁川取引所를 京城에 移轉함과 如한 事가 잇서서는 仁川의 死活問題임으로 此移轉은 어데서지든지 防치 안어서는 아니되겟슴으로 그 方法으로 一株라도 더 仁川在住者가 所有할 必要가 잇다하야 大株主를 一人에 限함보다도 群小株主를 一人이라도 만히 갓게하는 것이 利益이라하는 意見에서 此四千圓으로 一軒에 十株式 百二十株의 仁取株를 買入하야 各自에 分配치 안코 組合에서 保管하야 仁取移轉防止에 努力하기로 六日組合會議에서 決定하엿더라

◇ 橫說竪說

大喝도 迷村의 大吠로, 奉天은 綻落하고, 財界恭席와 物價暴騰, 匪賊流行과 馬賊橫行, 張軍은 오죽한 念世이라고, 千萬孔에 扁鵲도 投匙?

◇ 對岸寬甸縣이 또, 朝鮮에 對한 防穀을 實施하리라고. 쌀은 나가고 좁쌀은 안들어오고, 우리의 먹을것은……?

◇ 宮內省의 怪文書事件이, 또 擴大되야, 前鮮總督齋藤赤池君이, 取調를 當하리라고, 今番은 오 松島事件으로 發覺이 될 것인가

白頭山觀察 (十二)

崔南善

十一、虛川江의 龍갈이

山麓이 아득한 다라나와서 「에그오쯤은 갓이 만하여간다」하는 말을 여러번 들으면서 우리의 自働車隊는 어느덧 御坪里에서 平地를 엇고 熊耳橋를 건너서 甲坪(甘坪)이라는 큰 店街를 넘어오는 이를 위하야 거리에 회나 나니 瑞麟이라는 私立學校 잇슴과 그 前이 이 近一帶는 山南面이라 지나가는 곳이라 하며 어떤 村家 갈은 두 屋의 制樣이다른데 보담 좀 못하기 가장 나은 곳이라하며 甲山의 中에서 生活 程度가 나은 곳이라 한다 警官의 가만히 본즉 엽헤 聽濤를 삼는 同時에 防禦陣地를 나와서 勞働 하는 地下로 隧道를 내어 …

一一八六米突의 呼蘭嶺 카르… 食을 지어서 넘어서매 甲山의 壞域이 되고 鮫岩이라는 곳을 上里라는 大村을 지나서 二百里에 오래간 만에 다시 水量을 다 엇고 …

自働車가 업다 甲山은 二千里가 못되 …

合하야 鴨綠江上流域의 一大支流인 虛川江 일운 것을 보니 性性히 崎嶇과 曲岸을 가지 長遠 …

司法官의 思想硏究費

來年十六萬圓要求

司法省은 各地에 最近 思想의 犯罪가 激增하야 이 때문에 各司法官의 事務가 多함으로 此際特히 司法官의 思想的 傾向에 就하야 硏究식힐 必要가 잇다하야 大正十六年度豫算에 新規事業으로 思想問題調査硏究費 十六萬圓을 要求하기로 되엿더라(東京電)

中國鐵道顧問

島氏로 決定

民國鐵道部顧問 故平井晴二郎氏의 後任에 對하야 井上鐵相은 大村卓一氏를 推薦하엿는데 大村氏는 此를 拒絕하엿슴으로 現鐵道省工作局長으로 就任하기를 懇請하엿는데 鐵道의 元老인 島安次郎氏를 推薦하기로 決議하고 氏의 承諾을 得하엿슴으로 二、三日中에 正式發表를 한다더라

財政難으로 라듸오課稅

東京市에서

東京市는 多年財政難에 苦痛하든바 新伊澤東京市長은 大正十六年度豫算編成에 際하야 「라듸오」稅를 課하고 年六十萬圓의 收入을 得하라하야 目下具體案을 作製中이더라(東京電)

口腔外科 齒科一般
江南齒科醫院
院長 李鎬坤
鍾路南補後井里九八 (觀井里郵便所前)
電話 二六八

朝鮮劇場
電話光一〇五
大正活映提供 黑旋風 全七卷
馬上大活劇 內容이 珍妙한 奇想天外 大活劇!
戰慄大活劇 대부君의 사로메 全卷
新派悲劇 婦人凱旋 全八卷
◇特別豫告◇
大戰悲詩 蜂雀 全九卷
人類의 秘史 愛의 光輝 全九卷
不朽名篇 亞細亞의 光 十卷
料金 階上 大人 … 小人 …

旅行、散步、할때에는 잇지를 마십시요 腕卷時計를
形 八形 十形 要價 十圓
京城鍾路中央靑年會下階 中央堂 電話光 七二二番

漫画浴衣地 二萬反提供
ベルベット石鹸
베루벳도 비누
몸시문지르지안어도거품이잘니러나는
只今 お試み三個入 …

洋服學生大募集 就職近道
募集 自八月一日 至九月末日
京城府鍾路四丁目 京城實業學院

水原利川間 自動車通行安全
定期出發時間 午前八時半 午後二時半
直通賃金 二圓九十錢
水原驛前 中央自動車合資會社 電話一四七番

第三學年 若干人
五山高等普通學校補缺生募集
新書提出期日 八月末日까지
試驗期日 九月三、四日

願屆 申請 契約 書式大鑑
一見 即座에 所用되는
代書人不要
代書用品
證文과 契約의 書法
發行所 中央書院

入院隨意 濟衆醫院診療開始
院長 李熙遇

天池에人跡가자 突然히風雨大作

探險隊三池에서溫泉發見

—탐험대가백두산텬지에배를띄우울때 갑작히풍우가이러나활동사진만박어—

백두산동산대(白頭山登山隊)는 부근에서 온천을 발견하엿는데 지난이십구일 동산이래 련일나 온도는 섭씨이십이도 오부라한 데는비로인하야 일행이 적지안다 이온천이나는곳은 만흔산이 온고생을하며 동산을 계속하야 사방을둘러싸고 가장갓가히 첩 지난삼일에 정상(頂上)에 도달 봇(秋峯)이러는산이 이서 그풍경 하엿는데 일행은 동산도중에산 이 가장아름다움으로 장래에는 도야지떼를맛나 총으로 삼기도 고원별지(高原別地)로세계 하고 여러가지식물을 채취도하 에 유명하게되리라더라(백두산 엿는데 정상에올라 텬디(天池) 동산대뎐보)

‖삼지연(三池淵)을탐험하고서 가지고 갓든배를 되우며 네날부터나려 오는던셜과가치 갑작히 풍우가 대작하며 안개가보이게 이러나 엇질수업시 목뎍을 달치못하고 표못 련계의활동사진만 박고 사 일에 산장을떠나 재작칠일에 혜 산진(惠山鎭)에 무사히 귀환하엿 는데 나려오든길에 중복에있는 삼지(三池)를 측량하엿다

東京에또地震

지난번여진인듯

동경에머의 인심은 지난삼일디 진으로 발미암아 안뎡되지못한 중에 다시일헤날 오후세시십셔 분에 동경부근에 디진이잇서 문 밧그로 뛰여나가는등 혼잡을일 우엇스나 손해는 업섯다더라(동경뎐보)

苦學生을팔아 十數萬圓沒食?

—조선중국유지에게기부바다서 어되로숨켯는가 김춘화교수—

東京東西寄宿舍의罪惡

소위동양융화(東洋融和)의 리상을 실현하고 한달에이십원식의 식비 을위하야 고학생을 도아준다는 명목으로 간판을걸고 동경(東京)에다가 동아화생의숙사 (東西寮) 東西寄宿舍)를 세운 김춘화 ... 지난이십구일밥 에 천귀여강이라는녀사는 동여 어되로숨취움 감초아버리엇 하엿는바 이를위하야 에잇든 화생들은 편으로조선(朝鮮)중국(中國)미 모다조선이 곤란하야 사십일부 만(滿洲)인도(印度)등디에서유 너 그리숙사분을 닷치게되엿다 지를달래여 십수만원이 기부 을바다가지고 세상에서 일흠 욕입게된일본화사원 수편강히지(片岡寬)라는녀 자는 장작인(版作家)을 니못하 야 각처에서기부바든 십이만의 돈은 엇더케되엿는지 그저정의 하는 동경부하상락합(東京府下上落合)에이는 사숙사에이는 조선류학 우조선인류학생네사람과 대마 생 하이산이가 련 인색사람과 중국이 내가당 수상의사실을알엇다가 편상은 그의 아들 경차의 별장에 숨어잇슴을 발견하고 그를체포하랴한즉 행동을 개하엿스나 뎐강은다시 어되로 숨어버렷슴으로 선과한 인종은 할수업시 칠일오후열두 시경에 동경경시텽고등과에 출두하야 사실뎐말을 고발하엿슴 으로 경시텽에서는 활동을개시 하엿다는데 뎐강은 자긔집에잇 는학생은 하인과가치부리며 자 긔아들 경차에게는 극히호화롭 은생활을식히는 한편으로 원래 파부외몸으로 자유인것을 긔화 로 류학생을되여다가 동금을하 는등 교육자로써용서치못할 추 행을 마음대로하엿다더라 (동경뎐보)

◇대마도지사당(萬松院)

平南水災損害 總額百餘萬圓

—교량암거가데일만히상해—

流壞橋梁暗渠七百餘

금번비로 말미암은 평안남도내의도로(道路) 교량(橋梁) 암거(暗渠)등의파손류실등손해에대하야 평남도텽토목과에서 지난 칠월이십팔일부터이달삼일까지 실디조사한바에의지하면 일이등 도로가 팔십사개소파손에 십사만사천구백사십칠원이요교량이일백이십사개소 류실급 파손에구십팔만사천삼백이십이원이며암거=은구가구백사개소파손에 로도 합계백일만칠천이백칠원이라더라(평양)

濱松爭議解決

쌍방의절충으로

【동경】일본 빈송(濱松)악긔쟁의(樂器爭議)는 회사측과직공측의 절충협조로 인하야 쌍방이 조인하고 해결되엿다는데 회사측의 지출한것이 합계삼만팔천원에 달하엿다더라(빈송뎐보)

논꼬막다溺死

지난九

일오전열시경에 경긔도 안성군 이죽면 당목리(京畿道安城郡二竹面竹木里) 압내물에서는 당디사는 서덕삼(徐德三)(三二)이가 물을건너서 자긔의소작하는논둑이 문허지는것을보고 그것을방축하려고 건너가든중 무참한 죽엄의길을 떠나게되엿다는데 이급보를들은 그의가족들은 시테를찻고자 팔방으로로력중이나 아즉까지 찻지못하엿다하며 시테의간곳은 추칙상충북진천(忠北鎭川)방면인듯하다더라(죽산)

쌀을이고江건너던 婦女二名溺死

밤중에두만강에서빠저죽어

지난이십구일 느진저녁에 두만강 동관진도선장(豆滿江東關鎭渡船場)에서 일주부터 백미(白米)밀수하든 간도화서평(間島和西坪)에사는 림언경(林彦京) 외처(外妻)와 동관진에사는 성용권(張川權)의 처(妻)두명이 그날저녁도 역시백미를 사가지고 어두운밤에 강을건너다가 평시보다 물이 한자나 더한 두만강(豆滿江)의 흐린물결에 그만싸저죽엇다는데 친척들은 목하그시톄를 수색중이라더라(간도)

病으로溺死

평남평원군묘지면

룡정리(小院面龍亭里)백구십칠번디리정찬(李正燦)의 안해오정례(吳正禮)(二二)는지난 두만달삼십일 오전아홉시경에 그동리더수지에몸을던지어자살을하엿는바 그는작년부터 곳칠수업는병이들어 늘비관하든끗헤 그와가치죽은것이듯하다더라(평양)

五A對一로 明大快勝

對殖銀野球戰

既報=朝鮮體育協會(日本人側)招聘으로來京한明治大學對京城殖産銀行의野球戰은七日午後四時四十五分부터京城運動場『그라운드』에서殖銀先攻으로開始• 球審須田•壘審眞鍋•安立

殖銀은第一回一死後丸中鈴木各其四球로出하아角谷三振時丸中三壘를盜하엿섯스나池內二飛로好機를逸하고其後第四回까지無爲로나려오다가 第五回二死後高橋死球로出하아川瀨의左前安打로滿壘가되엿는데又復丸中의死球로高橋本壘에入하아高貴한一點을得한後로는九回까지無爲이엇슴에反하아明大는第一回에錢村遊前強安打로出하아一點•第三回에錢村又投側軟安打로出하야一點을得하고第四回에中川左中間二壘打手塚遊前失로又復二點을加한後第五回에熊谷一二間安打로또一點을得한後八回末까지無爲로終하야結局五A一對로明大가快勝하다

══閉戰六時三十五分

明大				殖銀	
9	錢村	打數	32	28	神田 5
2	大地	安打	4	2	丸中 8
8	熊谷	犧打	0	0	鈴木 4
6	林	盜壘	6	1	角谷 7
7	中川	三振	1	6	池內 3
3	手塚	四死	2	7	中村 2
5	高橋	失策	1	7	森田 0
1	安川				高橋 1
4	永澤				川瀨 6

二壘打明大中川▲三壘打明大熊谷•林

米國女流水泳家 英佛海峽橫斷

世界水泳界新記錄

亞米利加女流水泳選手엘드•에달孃은지난六月에비로소世界水泳界의難所인英佛海峽橫斷水泳에成功하엿다所要時間十四時間三十分으로世界新記錄을作하엿는데오히려同孃은佛蘭西側그리스넷츠岬으로부터英吉利킨아우스다운을向하아橫斷하엿다 (倫敦電報)

光化門解體

수일전착수

경복궁정문광화문(光化門)이던공사는 수일전에 해테공사에착수하엿는데 레칭부는궁천조(宮川組)에서 오만사천팔백원에 입찰하야 명년팔월십오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터이라는데 해테한광화문은 건춘문(建春門)에다시지을터이며 따라서광화문의좌우에잇는궁장도헐어버릴터이라더라

少年斥候總聯盟 諸般事業革新

조선소년척후총련맹에서 뎡긔총회를열고내용혁신

사회를위하야 자긔직분을 다하며 항상다른사람 도웁기를준비하며 항상자긔덕성을닥그며 신톄를 건전케한다는 강령(綱領)으로 소년의심신을 단련하기위하야 조직된 소년척후단 조선총련맹에서는 재작칠일오후에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안에서 뎡긔총회를 개최하엿다 멀리함흥(咸興) 원산(元山) 선천(宣川) 마산(馬山) 부산(釜山)등디에서 참석한 각호대(虎隊)대표들까지 렬석하야 이십사오명의 비원(備員)이 모히여 총재(李商在)씨의 결석으로 박창한(朴昌漢)씨의 사회로 간사유억겸(兪億兼)씨의사업보고와 회계보고가잇고 헌법조항중의 약간을수정한후 아래와가치 리사열명을선뎡한후 신사항에드러가 여러가지 조혼의견이만헛스나 진부리사회에 일임하기로하고 총련맹을위하야 만히로력한 간사유억겸씨와 부간사뎡성채(鄭聖采)씨의 공로를표창한후 저녁을 가치눈호고 여러시반경에 폐회하엿는데 현재총련맹에 가입처후단은 열아홉이라더라

◇理事 ▲李東元▲李川成▲具榮淑▲趙炳玉▲朴勝喆▲白寬洙▲具滋王▲金東進▲金潤秀▲張斗鉉

家族을毒殺

—하려다잡혀

일본삼중현 지마군빈도뎡 자빈도(三重縣志摩郡濱島町字濱島)

金尹兩人이情死하기까지 (三)

京城에잇슬새에도 晝夜로情死要求

—그럴적마다윤양은반대를하엿다 알수업던윤양의여러태도—

暗黑面과人生悲劇

◇……그뿐만 안이라 윤심덕양은또한자긔의 살틀한동모들과 마조안젓슬때 그것이무슨의미로하는말인지도 사실인지안인지는알수업거니와 『현재나의아버지는 나의친아버지가 안이란다 그래서 우리집에서는말섯중에나에게만 데일박하게하여주어요 이런……괴막힌노릇이니……』하고 커다란두눈에하염업는눈물이 그렁그렁하여지며 금창이메이는듯한 목소래로각금말하는일도잇섯다한다

◇……그러케윤양은권에업시남모르는수심과 국도로『쎈치멘탈』한긔분에잠겨 잇슬때에김우진군이자긔의 집으로하직하고다시금 윤양을차젓든것이다 서로사랑하고 서로리해하든두 청년남녀가 다각기인생의광명면(光明面)을발견치못하고 암흑한절망과 비애의 쓸아린가슴을부등켜잡고 서로맛나는것은반드시 인생쇠패의비극인것은세상에 흔히잇는일이다 그리하야김우진군도 윤양을찻는길로곳자긔의설흔사정을 눈물로하소연하고정사하기를 칭하엿든것이다

◇……그로부터김군은서울에 잇슬동안 윤양에대하야정사하자는요구가 하로에도 몃번식이엇다하나 그러나윤양은그럴적마다『우리가지금한참살나에 죽기는왜죽어! 엇던사람들은 살다가살다가 병들어죽고굶어서죽는것도 설다고들하는데우리도세상이아모러커나 부모가아모리커나살아 보다가죽지굴세긔왕살아잇는 목숨을왜던지고하니!』하고이가튼말로써매양김군을달래고하엿다 한다윤양은김군에대하야 표면으로는 『옵바』라고부르며 서로『해라』를하고지내는것이다 그러면에 감초인 김혼사랑은 말할것도업고……

◇……그한편으로윤양은또한 자긔와 친한동모들에게대하여서도『우리목포옵바가 날더러 작고만 죽자고하는구나 글쎄 죽기는 무슨까닭으로 죽니?』하고 이러케아니죽겟다는락관의태도를보히면서도 또엇던때로는『나는찰라(刹那)에산다 시말하면 찰라미(美)에사는사람이다 이찰라의미를엇을수가업시된다하면 그때가서는 나는죽는사람이다 즉사십이넘도록온 세상에 살아잇지안켓다』는말을하야 생에대한애착이깁지안타는것과 자긔는세상에오래살지안켓다는뜻을 한숨석거말한적도 한두번아니엇다한다 윤양의친에말과 지금의말을대조하여보면 과연그어느것이진정한마음이엇는지 그것을아는사람은 업섯든것이다

◇……그리다가 윤양은 김군을한거름 먼저동경으로보냇든것인데 동경가서잇는김군에게로부터 윤양에게로편지가올적마다 반드시죽자는말을당부히하엿다한다 그후윤양은김군에게서온편지를 모다업새여버리고 자긔가도라와서업겟다고 녀름의복가지들을 만히하야 케다려서 려관행리속에차곡차곡너허둔후 칠월십팔일한만흔 경성을 마지막하직한것이엇다 윤양의『로맨쓰』와 성격등 여러가지사실에대하야는 그의살어잇슬때 친히본보독자긔자란(讀者記者欄)에 이미 상세히보도한바가 잇섯거니와 윤양은남성보다도 더활발하다고는하면서도 가뎡에 드러서는친선(親善)이러든가 그 밧게여러가지의일을기맥히게 잘 한다든것이또한그의특댱중의 하나이라하겟다

◇……그가튼윤양이정사를하엿다는데대하야 아즉도세상에는 그의죽엄이살어지지안엇다 윤양을 잘아는여러사람의관찰하는바를종합하여보면『윤양은결코 정사까지할마음은업섯슬것이다 그러나김우진군을사랑하엿기때문에 그가자긔의하랴는바 장래사업과허회망에대하야자긔의두주먹과 의지보다도 자긔의금력(金力)을더욱미덧다가거기에 절망을당하고말닷허인생의압흔면을드려다 보면 세상에살어잇지안코저하는것을매우가엽시생각하고 동정하야 어데까지든지 그를그 가튼커디에서 구해주랴고무한애섯슬것이다 그리하야배우에쉬두신을하기권해지도 윤양은김군을달래고 그맘을돌리도록잇는정성을다하여보앗슬것이나 김군의결심이의외로 강경하야단둘이 배에올랏다가자긔의애인이죽엄의나락로가는데 자긔도그와함께 가는것이당연한줄로알고 그와가치정사를한것인듯하다』는것이다

遺留品全部受取

량인의시톄는목하수색중

◇……그관찰이뎡당할는지알수업거니와 그한편으로목포김우진의가뎡은 말할것도업고서내서대문뎡 윤양의가뎡에는그늙은부모가 하나되는아들과망내딸은 미국에보내고지금은얼마컨 미망인(未亡人)이된맛딸 윤심성(尹心星)녀사와 가치잇는중인데한달에 몃십원못되는 집세를 밧어가지고근근히살아가는중으로 생활난에 적지안캐고생하는모양이다 그의형은 심성녀사와 김군의아오 텰진(哲鎭)군은 지난륙일부산에나려가 그유품을차젓다하며또한 텰진군은 그형의시톄를찻겟다고부산에의연히 데류중이라한다=쯧

農士를求하다 間島에서自殺

살길을구하다가간도서자살

流浪하는同胞의悲慘한最後

지난이십팔일새벽에간도연길현 상의향신흥동(間島延吉縣尙義鄕新興洞)에서는 원적을강원도 이천군룡포면문덕리(江原道伊川郡龍浦面文德里)에두고 간도신흥동에사는주청달(周淸達)이가목을매고 자살하엿다는데 그는원적디에서 근근히 농업으로호구하여오든바금년이 조란말에 간도디방에 농업이조란말을듯고집한채와 약간의구물을팔아 돈백여원을 가지고 오륙인에가족이류로로걸식을하며겨우간도까지갓든바 드른바와는 권허사정이다르지아니하야 또디사지못하고 사고무친한이역에서 엇지할길이업시방황하다가간신히감자밧쳡일경을사서그것이나마농사라고지엿스나 주청달은 항상모든것이 여의치안음을 한탄하여압흐로도 여러권속과 호구하여갈길이업슴을비관하야오든끗헤 그가처이리되로 목을매고죽은것이라는데이참경을당한그의애처와 권속들은 엇지할줄을몰으고 울음하는것은 볼수업것다더라(간도)

絶島風情

◇對馬島訪問◇ (七)

兩國間에挾在하야 平和維持에焦慮

—사위책으로조선과일본두나라의화친을꾀해 량국의국서까지위조하야사직의위급을구해—

水陸巡訪第二隊二班 嚴原에서萬年壽人

대마도주가 이와가치우리나라 대신의 사령서를밧고신하노릇을하엿나는 증거를사처에살펴보면 그뿐만아니겟지마는 우리나라를섬기는반면으로 일본정부에는 모다민첩한관계를맷고잇서와나 이것은고래로일본무력이 조선보다 강한때가 만허 일본과 접근하는것이 자위상유리하다는 딤도만켓거니와 그보다도 대마도인에는 일본이내란으로 몰리오사람이 만혀 두서넛으로 자연히 협동할 차시일본과 가깝게 지내든것이다 그리하야 임진왜란이이러날시대에는 벌서완전히일본렁토가되여버려 대마도군사가 선봉을서서 조선으로건너오기싀지되엿다

◇

대마도군사가 선봉으로 서기는섯스되이는어찌할수업시선것으로만리가장차이러나려 할때 도주는여러번 풍신수길(豐臣秀吉)에게동병을중지하여날라고애원하고한편으로는조선정부에대하야 미리회의할김을 고칠하엿다 그러나뜻미로되지안이어 출병을하며대마도주도엇갈수업시 복종하엿스되란리가채웃나기전부터 이십여세된대마도주종의지(宗義智)는 다섯번이나사신을조선으로 보낫다가는 잡히여주는것을불고하고 못못내목던을이루고말엇다(각지=인조대왕의 친필액자와광해군의 향로죽미에하사도이종의지(宗義智)에게 내린것이다

◇

이와가치대마도는량국의사이에서여서 하호하박을하고는살수업는 처디에잇섯슴으로언제든지 량국의관계를원만하게만외하여왓다 이러하야량국간에왕래하는 외교문서를던달할때에 한편국서가 무례하다든지하면국서를 곳치어보내여 량국의국교가 무사하기만바랏다이것은 내종에일본덕천막부(德川幕府)에발견되여 때의이십삼대도주 종의성(宗義成)이 최를입어 나라를빼앗기게되엿다가신히 외무대신격인류천조홍(柳川調興)이 뎡배를가고말엇는데 이때에대마도신하들은 국가의운명이다하엿다고 칠팔인이 할복자살한일까지잇섯다

◇

이처름대마도주는신명을밧치고싸지 량국의환심을사려고노력하다가 일시는사직을보존치못할디경에까지 이르렀섯스나 조선을버리고는 대마도가부지하여나갈수가업는처디 임으로 대마도주가죽든지 강호(江戶)막부로갈때에든지 갓다가올때에든지 엇재ㅅ든주요한일에는 반드시사신을부산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보내여상주하엿다(대마도주든지 사절은직접상경하지를못하고 동래부사를만나보고 례조참의에게헌뎡하엿다)

鍾崒山의中腹에 七烈士의古墳

—부만년목은상록수들어선종벽산 장초기옥어진곳에칠렬사의무덤—

宗社의安全을爲하야割腹自殺

만송원에서인조대왕의친필액자와 향로를보고 나는 갑작히이러나 르고싶은생각에 시간이가는줄도모르고 쓰려렷다가소림(小林)도사의재촉으로 부근을나서 종의지(宗義智)이하 대마도주 십사대의천영과 그신하들의분모가잇는 종벽산(鍾碧山)이다 루만년목은 잣나무들이울울히 하늘을찌르고 새파란머나무는 빈틈업시 드러백혀 대낫에우는 바람소리와 돌틈에구는시내소리와 아울러천고의령계를아뢰는듯•백여단충대에는잡인의발자최를 금하는것처럼돌의기가 새파랏케 입히엿다가슴이서늘한것을 억지로부여잡고칭수에 손을 씻은후 떼허에도라 가련는 모던의 석비석탑을 차레로도라본후에 일흥모를삽목사이로 길을 헤치며 좀복에이르려 조선국서위조죄로도주가 죄를입어사직이의급하엿슬때 할복자살한 칠렬사의 충혼을조상하니 비록나라는다를지언정 렬사를추억하는비회를 금할수업섯다 발을아창연한들 멀리바다박그로한뎡도리키니 바다밧그로한뎡의혹운이머물렷스니 그곳이아마 우리양인가보다(게속)

短刀가진夜警 朝鮮少年亂刺

일인야경이됴선애를찔러

지난오일밤 오전다섯시에 부산본뎡(本町)오뎡목야경번일본인산내청의(山內正義)(三十)는좌동뎡(佐藤町)이엽상뎜(二葉商店)근처에으는 대구출생인박태일(朴太日)(二五)을예민하던도로 외팔파긔라두어곳을 난자한후 가해자는즉시경찰서에검속되고피해자박태일은 간곳이 업슴으로그원인은 자세히알수업스나 가해자말에의하면권긔박태일이가칠다가두도질을하랴함으로그러케한것이라더라(부산)

◆天氣豫報◆

曇 驟雨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高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中國料亭襲擊

演劇보던靑年數名

사소한말성으로싸우다가

中國人二名重輕傷

十二名檢擧

지난오일밤 열한시쯤 대구경뎡(京町)활동상설만경관(萬鏡館)에서개연중의 중국인 연극을보고잇든대봉정(大鳳町)삽백구번디중국인당조칭(張潮淸)과 남성정(南城町)최진엽(崔鎭燁)의사이에 말다툼한것이 원인으로그날밤세곳의 중국인 료리점에만흔 군중이몰녀드러가 긔구를파괴하고 사람을구타한 일대소동이잇섯다는데 사건의 발단은 권리두명이 한자리에 안자서연극을구경하던중 최진엽은 중국연극은 너무도 싯그럽우니 치어바리라고 소리를쳣던바 장조칭은 싯그럽거든 나가라고하야 그만말성이되여그자리에서는 몃마듸의 오고가는 닥홈이잇다가 두명의경관이와서 말니어그만두고 다시그자리를떠나 최진엽은 수명의동모와합께 도라가는 장조칭외수명의지나인의게힐난을거러지나료리뎜군방각(群芳閣)외두곳에까지 도라다니며 새벽네시경까지야단을 쳣는데맛참내 대구서에서 다수한 경관이출동하야권긔최진엽외오륙명을검거하야목하 엄중취조중이며 한편으로중국인 장조칭외 두명의부상자를내어 그중두명은 위독하고한명은경상으로 모다 호생당의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바 익효일에는 대구디방 검사국에서검사가 출동하야 피해각처를조사하얏고 칠일에는 대구서사법계에서 또한피해각처에 일일히 사진을박는등 사건을 매우중시하는모양이라더라(대구) 에서는 朴칠당일간에 거원비상소집을하야권후삼회에십이명의피의자를 검속하엿는데 문데는권긔화대되야국제문데에까지발생할지도모르겟더라(대구지국뎐보)

十三萬圓짜리金剛石

지난이월중순경 상해(上海)착란서사람『아시도니오빠고스』가 불란서조계(佛界)에서거주하는 시가 십삼만팔천칠백칠십륙원되는 금강석을 영국긔선『노바라』호에다실고상해로부터일본 횡빈(橫濱)으로밀수입을하엿다가 세관에서 발각되여압수를당하고구만상해로 도망하고 만일아잇섯는데이제와서법률상시효(時效)가지내인까닭으로불긔소로되엿다는바 권긔 불란서사람이금강석을 올려보내라 하엿슴으로횡빈 세관에서 엇쩔수업시 신세관법(新稅關法)에의지하야 사만원만밧고 권긔금강석은 내여주엇다더라(동경뎐보)

京城 登錄商標 第一 第二 륙디

大陸고무 元祖 我고무 新世界

京城鍾路(裁判所前) 電話光化門七六八番 南大門通四丁目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社長 李

土金石金買入

京城明治町 德力出張所

平北宣川郡川南洞 德力臨時出張所

在庫品特價大宣傳

品質本位

十三種一組

理髮器具 金物 洋傘 和服

京城鍾路二丁目八十七番地 田中商店

咽喉를부드럽게하고 音聲을조케함

團形淺田飴

—定價— 東京•大阪 堀內伊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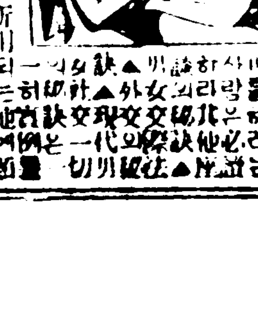
瘰癧 淋巴腺結核

瘰癧藥院

帶下症

出世를하고십흔 男女는보라

社交의秘訣



新語辭典

東興堂

새가뎡론(五)

현재됴선가뎡의 여러가지문뎨와 그해결책에대한관견

송아

十四、근본뎍해결

가뎡문뎨의 근본해결은 그근본뎍원인을 업시함에잇습니다 위에말한모든 문뎨의근본원인을살피어보면 거의그뜻흔 부인의디위가 약하다는데귀착됩니다 그럼으로그근본뎍해결은 부인의디위를 강하게하는것이외다 부인의디위가 남자와다름업은사회뎍지위와 생리뎍차이가잇고사회뎍 지위가약한것은그근본이 경제뎍으로약한데잇습니다

그것은무슨말이냐하면오늘날 가뎡의 문뎨가이러날때는반드이그타격의대부분이 녀자의머리우에떨어지기때문에 남자는자연이 횡포하게되야 가뎡불화를니르키기를 주저하지만는것이외다 만일남자에게도국가치 타격을맛게된다던지 녀자가별로타격을아니 밧는다던지 하면불화가더생길것이오 생기더라도오늘과가치 불행한문뎨가 아니될것이외다

그러면남자의횡포에대하여서 녀자는 웨굴복을하는가그리유는사회뎍과경제뎍 두가지니가령리혼을하게되면 생활의보장을엇지못하고 사회뎍 제재를바다다시결혼 못하는것은녀자이요남자는 안이외다그러나사회뎍제재라는것도 경제뎍약뎜때문에생긴것이오 만일녀자들이경제뎍 독립이잇서 남자에게부터살지안는다하면 여러가지사회뎍압박도자연히 소멸되고말것입니다

그러면결국가는데는녀자의경제뎍자유입니다 녀자에게경제뎍자유가잇스면 창피제도도업서질것이오 첩도업슬것 다처주의도 새어질것입니다그런아니라리혼문뎨로 인하야밧는부인의타격도별로 업슬것이오또리혼의 수효도줄것이니 이는생활문데로 인한매매결혼이업서지는까닭입니다

◇

녀자의 생리뎍 차별은물론언제던지 남어잇는문데니 음일가치녀자의 체질이약한 것은녀자의해방이 진취됨을 따라지를오나 그외의「정」의차별은업서지지 안을것이외다그러나장래에는 오늘과가튼뎡조관념이 크게개혁되여 녀자가뎡조문뎨로 남자보다불리익한자리에 서게되는것도 업서질것입니다

◇

경제뎍자유라는것은부인이직업을가진다하는것으로 해결될것이아닙니다 아모리 부인이직업을가지드래도 부인은해산과 아희기르는일이잇기때문에 남자와 경쟁할수업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국가로서부인의편리이해산과 아희기르는것임을인정하야 특별한보호를하는것이 진칭한경제뎍 자유를엇는것이외다 그것은오늘가치 방임뎍경쟁으로 원측으로한경제조직밋헤서는불가능하고 오직산업제도가조직잇는 민중의힘으로 조직되는제도가 확실히 선뎌에야될것입니다 그런즉가뎡문뎨의해결도 근본으로드러가면 현재사회의경제조직을 개조하는데잇는것이외다 (계속)

부인과학 악수는위험

반가다고내미는손에 칼보다도무서운미균

서양예법이 동양예법과정반대되는것이 만히잇다고는새삼스러히 들을것업는일이거니와 이런것도그중에하나이습니다「서양사람은남의손을 삼고인사하고동양사람은 제손삼고인사한다」고 남의손을삼고 인사하는것은 악수라는 례법이양풍을 따라수입이되여 지금은남자 남자끼리나 녀자녀자끼리 악수하야례하는법은 일반류행이되다시피하엿습니다 남녀간의 악수는아직 내외하는힘이센 까닭인지 별로 보지못하나 장차는 역시류행될것입니다

◇

그런데 악수의 근원디인미국에「호미파시스」라는회에서는 미국대통령의악수의습관을폐지하는법률을만들라는결의안을데출하엿답니다 이것은「하딍」대통령이 사련을때일인데 싸닭인즉그회의회원이 대통령과 맛나볼때에 일천오백명이나되는회원에게 일일히 악수를하엿는데 그것을 보사람이 대통령의수고하는것과 또는악수에 따라오는병의전염을려려한것입니다

◇

이런의안은 대통령의 인권을가섭하는것이라하야부결되엿지마는 악수로인한병의 전염이란것은정말히볼수업는문데입니다

◇

악수라하는데에례법은실상은분명치례법이아니라 녯날로마시대에 생긴례법입니다 그때는사람마다칼을품고단니면서사람을살륙이는고로 친구를 맛날때는칼을아니가지섯다는표로악수를한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와서는사람의손에는 칼보다도 더무서운미균이부터단니는것이발견되엇습니다 악수의 습관때문에 병에걸려죽은사람이얼마인지모를것입니다

◇

악수로인하야보통전염되는병은여러가지 종처와귀人병 눈人병 습진등이오 그밧게도파상풍(破傷風)결핵,문둥병,림질호렬자,마마,성홍열,마진,단독장질부사등삼십종이나됩니다

◇

바늘끗호로찔린상처는그직경이한치의 오십분지일이라는 적은구멍이지마는 그런데로라도 악수할때에 저편에 미균이잇스면그구멍으로전염이되어그적은속에 이천마리의미균이 드러갈수잇습니다 그것이다섯시간 안으로 이백만이됩니다 사람의손은매일입할때에 눈에 보이지안는적은장치들 만히버는데 그리로무서운병이 드러와서 혈관까지드러감니다 또손으로 직접안드러가더라도 손에무덧다가 눈이라던지 입이라던지 다른곳으로하여몸안에병이드러감니다

◇

그런즉그위험을피하기위하야는녯날가치 읍하고절하는「문명뎍」습관으로도라가는것이 가할는지오

녀자들의 운동경기―(3)

뎌룸한철에는 뛰쳐치기

(上)미국「윌리암스」대학의녀자수영선수일동가슴에물고기모양을부친것은물고기가치물을조하한다는뜻(下)세계올림픽대회에서「따이빙」에우승한「어윌린・리긴」양의물에뛰여드려가는모양(위에서부터) 一、「쌕、쌕크나이프」라는것이니 물를동지고서서손과방향만대엿다 떠러지는것 二、「포워드원앤드하프」아프로한바쿠반을 엥엥돌아떠러지는것 三、「스완」두팔버리고 떠러지는것이「스완」이란새와갓다하야 이름함 四、「프론트쌕크나이프」(一)과가트나 다만불등향하야서서 떠러지는것

윤김두사람의 정사사건

됴선인에서 제명하라

C生투서

윤심덕김우진량인의정사문데는 조선청년남녀가 한번록독히토론하고판단을나릴필요가잇는줄암니다여러분의기탄업는투서를구합니다

목포부자의아들이란 김우진파 조선유일의「쏘프라노」독창가이란 윤심덕이「정사」를하엿다「정사」한까닭과 전후의사정은 잘알수업스나 파연죽기는죽은모양이다

◇

이사건에대하야 어떤이는「사회의환경이 그러케하엿다」라하야 죄를 사회로돌린다든지「잘하리동정할만하다」하야한낫의치남치녀(痴男痴女)들을순고지처럼 놉히는이가잇스나이는적어도오늘이때의 조선사람의언론으로는 안된말인줄안다

◇

사회환경이 그들로하여금살지못하게하것이무엇잇느냐 조선유일의 성악가라는명예스러운칭호를 조선사회는그에게주지안엇더냐 몰론그의사행예대하야 당치안은 혹은가혹한시비론난이잇섯슬것도사실이다 그러나 신녀성의압길에그만한것도 각오치못하엿든가 그보다도더한비난과핍박도 달게바뎌면서 조선을위하야싸준히일하는남녀를 나는만히보앗다 남자는엇더하냐 가뎡에잇서서불만과불평이잇섯다고한다 그러나 그만한불만불평은현대 조선청년이태반이 나가진것이아니냐 그싸짓리유로자살한다하면 조선청년의반수는 벌서울귀이되엿겟다 아니조선청년은그런약골이아니다 불만불평이잇스니만치 맹진분격할긔운이잇서야할것이다「참인간뎍생활」을하고십다고집을떠낫다한다 게집을써안고몸에 뛰어드려가는것이「참인간」이더냐

◇

김사백보한보에양보하야죽을만한리유가충분히잇다고하자 그러타하드라도 죽음길이업서 남녀가 부둥켜안고정사를한단말이냐 드르니 남녀가다일본류학생이라한다「부둥켜안고정사」한다는것이 분명히조선사람의품성격을가진 남사람의풍속을배와온것인가보다 그들의머리에서는 조선혼이란다싸커버린것이다 아직못그려현해탄물에 떠나가는그시톄라망정 조선의흙이되는그들배려하엿스리라 유도당(有島武郞)가튼 최후한인간은번일본의영은 그들을환영하엿스리라

◇

사람이죽기를사양치안는마음이생긴뒤에야 무엇을못하리오 폐병으로 사형선고를밧고「에라죽기는일반이다」하고 나선「허무당사건」의「윤우렬」군도잇다「금호문사건」의「송학선」군도잇다 사회의환경에죄를돌린다면「박렬」파「금자문자」도엿다지 그러나 그의최후는엄마나통쾌하냐그야말로「박렬」여게서 조선혼을바다녀혼녀자인가보다 그의시데가 조선땅에무치는날조선의산천은 종용주어마즐것이다

◇

「정사사건」―큰사건은큰사건이다 웨그것이 조선청년남녀의나약한풍긔를 도아주게되면말이다나는두렵다 데이데삼의윤심덕파 김우진이날가보아 조선의청년남녀야 신녀청과신남성들아 다와서윤김두사람의죽엄에채人죽질하자 조선사람의명부에서 영원히그들의일홈을말삽해버리자

부인시사일속

김데녀자강습

김데녀자야학회에서는 지난사일밤부터오는 삼십일일까지이십팔일간녀자 하기강습회를개최하엿다는데학과와 강사는아래와갓답니다 (김데)

一、家庭敎育、朝鮮語 趙周安
一、習字、日語 金鳳根
一、裁縫 金橡淑
一、算術 趙判五

뎡주부인야학 유학생회에서

평북뎡주(定州)에서 각디에유학하는뎡주유학생회(定州遊學生會)의녀학생(女學生)주최로 오는졔일하오부터 아래와가치 부인야학회를 시작한다는바압지못하는부녀는만히와 배우기를 바란답니다(뎡주)

時日 八月六日下午七時부터
場所 邑內新安學校內
科目 普通學校三年以下程度
敎員 吳明〇、金〇明、卓川〇淑根 等數人

김데녀자야학방학

김데녀자야학회(金堤女子夜學會)에서는재난이일에하기방학식을거행하엿다는데 지난일학기동안에성적이 우승한이에상품을수여하엿다는바 그일홈은 아래와갓답니다(김데)

皆勤賞 甲班 金貞玉 李南樺
精勤賞 乙班 徐貞蓮 金炳禮 金順五

印度洋과地中海(九)

―渡歐手記―

獨逸寓居 桂貞植

地中海에나오니 暗雲低迷 風波가甚하야「룰링」「피칭」이大端하여 同船의 乘客이大概는元氣업시入床하야 食堂에서도數人밧게볼수가업섯다 이동안나는連日 語學練習과 外國地理도調査하여보고 바울린도練習하면서 荒浪船中生活을 數日繼續하엿다

『시실리』의噴煙

十二月十九日 今日부터는傑히晴雲이四方에散하고快晴한天氣가되엿다 風浪도저우鎭靜되엿다 朝七時半頃에母國을갓가히 歸航하는乘船 箱崎丸이洋上으로航走하는것을보고 相互히汽笛을振鳴하야別離의辭를할때에故國을떠나 他鄕으로向하는 나의心情을 더욱이나슬프게하엿다

午前十時右舷에서보이는 伊太利의尖端을遠望하고 十一時頃에는 左舷에「시실리」島「에도나」火山(海拔一〇八七呎)의噴煙함이眼界에 드러온다 午後一時頃에는「멧시나」海峽에本船이入하엿다 右便은即伊太利長靴形의尖端이요 左便은「시실리」島다其最狹한곳은二哩에不過하고 兩岸山丘에는綠翠가爽快하게도鮮明하고「멧시나」港의 街衢는蜒蜒하게海面을臨하야連在하고 赤瓦의洋舘은돈고갓게點在하야 其明媚한山姿水色은 참으로奇觀이엿다

夜間에火光衝天

「멧시나」海峽을지나 午後五時에 右舷近處에地中海燈臺라하는「스트롱보리」島의 活火山을보앗다 島는三千呎의 高山으로圓稚形으로 洋上에 屹立하여 頂上에는 白煙을吐히噴出하며 夜中에는火光이中天을焦하는듯한 壯觀을 뭇한다한다 오래동안의航海도 數日中으로맛추게되엿슴으로 各各自己의 旅程을말하엿스며 以後에다시相逢하자는 말을交換하는것이頻頻히들린다

翌十二月二十日다시低雲風荒하여船의 動搖가 激烈하엿다 夕陽에「보니판오」海峽을通過하엿다 此海峽南(左舷)에는伊太利愛國者 『가리발지』의生地인「사르지니아」가잇고北便(右舷)에는奈翁의生地「코르시카」가橫在하여잇섯스나 煙雨가朦々하야眺望할수가업섯다

航程四十日

十二月廿二日神戶를出帆한지四十日만에實로九七三三浬의航程을今日에야 겨우佛國第一商港인『말세유』에上陸할日이다朝來悲雨가霏霏히 甲板에부딋치여別離를 哀惜하는눈물인듯하고그소리는離別曲인듯하야 가슴을더욱애닯게하엿다 港內를港하기約一時間에 本船은『위외암・씩손』埠頭에繫留되엿다 果然佛國貿易港인만치壯觀이라 同船에서 家族과갓치하든 親舊들에게 別辭를交換하고 稅關檢査를맛치고「호텔・루ー블」에投宿하엿다 이때는『크리스마쓰』때임으로各處에서「크리스마쓰」準備에奔忙함을보매 故國에서도 各敎會堂에서 「크리스마쓰」準備에 얼마나분주할것을 幻想하면서 一夜를平安이지내고 翌日인十二月二十三日은『말세유』를出發하야 巴里로向하엿다(完)

가뎡고문

◦미술공부하고십허◦

(문) 저는본래이황해도인데미술을배호고저 상경한지다섯달인데 돈이업서寿군영문안에서 빵을굽고잇습니다 엇더케하여야공부를할가요(일독자)

(답) 지금가진직업을열심으로하서서 썩잘하시게되면그것으로돈을저축하야 압길이열닐줄암니다

◦부부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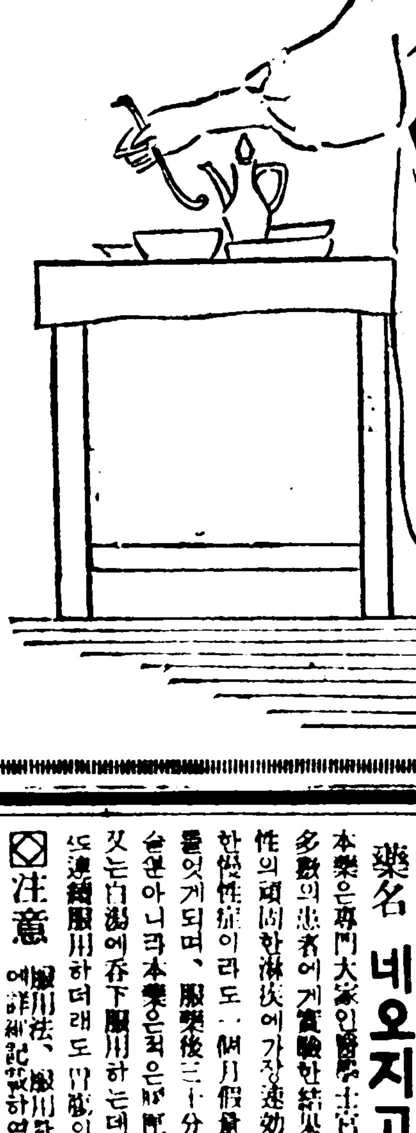
(문) 나는십구세의녀자온데삼년전에혼인하야 금실은조흐나 쌈을자조합니다 엇지하면쌈을아니할가요(리리일녀사)

(답) 쌈을아니하시랴거던서로참는것이 데일입니다그리고상대편의 의사를리해하고존중하도록마음을가지서야합니다

新刊紹介

◆朝鮮經濟雜誌(百十七號) 日文 四六倍版 二六頁 統計表 十八頁 價五十錢 京城商業會議所

期待以上



엇던料理든지아지노모도(味の素)를使用하시면맛이잇다고모다그러십니다。經費의節減과便利하기로또반듯이期待以上…調味의不安은即座에主婦의마음으로부터消滅합니다。

宮內省御用品

味の素 (아지노모도)

국수、국、찌개、반찬에치는장가든데곳試驗하시요當場에美味가倍加됨니다。

8―イ

生氣가잇는高尙한 化粧美를주는것은

純無鉛

구라부白粉 (クラブ)

舶來品을 凌駕하는 優良國産品

가테이石鹼 (カテイ)

일골의거칠어지지안코 살의美를더하는구라부石鹼과함께日本에잇서서 二大優良石鹼임니다

구라부쓰보미 (クラブつぼみ)

美人 … 化粧順序

專門大家醫學士宮田先生發見

速되는 淋疾專治藥

藥名 네오지고린(ネオヂゴリン)

本藥은專門大家인醫學士宮田先生이帝國大學病院에서多數의患者에게實驗한結果로新發明한良藥임으로 慢性의頑固한淋疾에가장速效가잇는特効藥인故로如何히慢性이라도 [illegible] 服藥後三十分後에는藥效로 [illegible]

注意 服用法、服用中、食養生 [illegible]

淋疾의 容體 [illegible]

藥價 一五十粒入 金弐圓、百五十粒入 金五圓 三百五十粒入 金拾圓

●本劑는一日二回二粒乃至三粒式服用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朝鮮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通 電本一六六〇番 振替京城一四二五八番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滿洲支店 大連市岩代町大通

附屬醫院 本店支店共附屬診療所를設備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과治療를하오니本藥店을利用하시오

◆廣告도記事 廣告도新聞記事와一樣으로精讀玩味하면實益과趣味가不少하오리다